

#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분석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An Analysis on the Parents' Communication Behavior with Their Teen-aged Children for Parent Education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순옥

Dept. of Home Management, Sung Kyun Kwan University  
Prof. : Kim, Soon Ok

## 〈목 차〉

I.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IV. 결과 및 해석
II. 의사소통행위 분류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parents' communication behavior with their teen-aged child and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 variables on it concerning with the parent education.

A sample of 599 teen-aged children was obtained from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ity of Seoul. Mean, t-test and F-test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The scores of parents' communication behavior are neither high nor low, namely, are not especially desirable.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behavior between father and mother, differences in father's communication behavior by father's age, schooling and occupation, differences in mother's communication behavior by mother's age and schooling, and differences in parents' communication behavior by child's sex and age.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it is necessary for all parents with teen-aged children to have the parental communication education, particularly for father with the older child.

## I.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부모교육의 내용은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를 선정하는 이유는 부모의 바람직한 의사소통행위가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김순옥, 1990 : 1993) 결과를 들 수 있다. 즉 부모가 웃는 얼굴과 조용한 음성으로 위로, 격려, 칭찬 등의 긍정적 대화를 많이 하고, 자녀의 이야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이해하여 줄 때에 자녀는 부모에게 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부모의 의사소통행위가 자녀의 의사소통개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설명력이 24.37%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부모자녀관계의 원만함을 의미하므로 부모의 바람직한 의사소통행위에 의하여 부모자녀관계는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와의 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가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성인교육은 교육대상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데 그 특성으로는 교육대상자의 연령, 언어 능력, 지적 능력, 신체적 기능, 교육적 배경, 교육내용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 경험, 교육자와의 관계, 동기 수준 등을 들 수 있다(차갑부, 1993, 255).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의 주요내용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는 부모됨이라는 일상적인 선행경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교육의 내용이나 대상집단이 결정되어야 더욱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는 부모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실증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는 특별한 측정도구의

사용을 통해서만 조사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나타나는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의 차이 분석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의 차이를 분석하여, 그 차이에 근거하여 유사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지닌 집단의 의사소통행위 특성을 유추하는 방법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의사소통행위 특성보다 쉽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교육에 있어서의 교육내용 및 교육대상집단을 선정할 수 있는 준거자료를 제시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할 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실태는 어떠한가, 父와 母의 의사소통행위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II. 의사소통행위 분류

부모자녀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를 분류하기 위하여 먼저 대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왜냐하면 대면적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대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대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는 주체[話者]가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 등으로 기호화한 메시지로 만들어서 매체를 통하여 수신자[聽者]에게 전달한 후 그들로부터 반응을 얻게 된다. 이 때 청자가 화자의 메시지를 되받아서 말을 한다면 청자는 화자가 되고, 원래의 화자는 청자가 되어 상호작용을 계속하게 된다. 즉 화자와 청자가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 자극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차배근, 1976b, 361).

이러한 대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화자가 사용하는 매체에 대하여 차배근(1976b, 357)은 주로 음성이지만 그외에 얼굴표정, 제스처어, 몸의 움직임 등의 신체적 동작도 매체로 사용된다고 하였으며, Miller(1966, 73) 역시 대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적 자극과 제스처어, 움직임, 표정 등의 신체적 자극 그리고 음성의 속도, 강도, 억양 등의 음성적 자극이 매체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Swensen Jr.(1973, 81-113)는 의사소통자가 사용하는 매체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의사소통의 매체로 언어 자체를 사용하는 언어적 형태와 음성을 사용하는 준언어적 형태 그리고 언어나 음성 이외의 수단을 사용하는 비언어적 형태를 들고 있다. 그 중 비언어적 형태에는 신체이동, 자세, 몸짓, 표정을 통한 신체동적 형태, 접촉을 통한 촉감적 형태, 냄새를 통한 후각적 형태, 간격을 통한 공간적 형태, 의상이나 장식을 통한 인공적 형태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홍기선(1989, 431-433)은 Berlo 등의 분류를 인용하여 비언어의 종류를 8가지 즉 의상, 얼굴과 눈, 자세, 몸짓, 접촉, 목소리, 공간과 지역성, 환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청자는 화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화자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화자의 속성이나 매체의 특성들도 함께 받아들여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 청자의 반응에 따라 화자는 피이드백을 하게 된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은 직선적인 것이 아니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 되는 것이다(차배근, 1976a, 43).

한편 언어적 의사소통형태는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즉 Satir(1972, 59-79)는 대인간의 수많은 의사소통을 관찰하여 수평형(leveling), 회유형(placating), 비난형(blaming), 계산형(computing), 산만형(distracting)으로 분류하고 Norton(1978)은 이완형(relaxed), 친근형(friendly), 개방형(open), 경청형( attentive), 표현형(animated), 지배형(dominant), 논쟁형(contentious)으로 분류하고 Hawkins, Weisberg,

Ray(1980)는 교제형(contactful), 분석형(speculative), 억제형(controlling), 인습형(conventional)으로 분류하고 Chaffee, Mclead, Wackman(1973)은 개념성 지향형(concept-oriented)과 사회성 지향형(socio-oriented)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을 기능적 유형과 역기능적 유형으로 대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기한 언어적 의사소통 형태 중에서 Satir(1972, 59-79)는 수평형을 기능적 유형으로,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산만형을 역기능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Norton(1978)은 이완형, 친근형, 개방형, 경청형, 표현형을 기능적 유형으로, 지배형, 논쟁형을 역기능적 유형으로 분류한다. 송성자(1985) 역시 권위지향적, 소심지향적, 불성실지향적, 회생지향적 의사소통 유형을 역기능적 유형으로 분류하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상대적인 개념을 기능적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또한 Gordon(1975)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전형적인 대화유형으로 1) 명령·지시, 2) 경고·훈계·위협, 3) 권유·설교, 4) 충고·제안이나 해결방법 제시, 5) 가르침·논리적 논의나 논증 제시, 6) 판단·비평·비난, 7) 칭찬·승인, 8) 욕설·조롱·망신, 9) 해석·분석·진단, 10) 위로·동정·지지, 11) 질문, 12) 회피·주의산만·농담·전환과 같은 12가지지를 제시하고 있다. 부모는 이상의 대화유형 중에서 명령, 설교나 장황한 훈계, 비평이나 비난, 욕설, 위협, 설득, 빈정대, 분노의 말을 피해야 한다(이유경 옮김, 1984: 김순희 옮김, 1987: 김진숙·연미희·이인수 옮김, 1990)고 하여 이러한 대화 유형들이 역기능적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격려, 칭찬, 제안, 정보 제공, 질문, 유우머, 간결하고 긍정적인 말, 인정, 이해, 공감, 수용, 경청 등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어(김진숙·연미희·이인수 옮김, 1990) 이러한 대화유형들은 기능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를 화자로서의 행위와 청자로서의 행위로 구분하기로 한다. 화자로서의 행위는 매체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적인 대화행위와 음성표현, 표정, 신체접촉 등의 비언어적 행위로 다시 구분

하는데 이 중 언어적인 대화행위는 다시 기능적인 긍정적 대화형태와 역기능적인 부정적 대화의 형태로 세분한다. 그리고 청자로서의 행위는 메시지에 대하여 반응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Ⅲ.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을,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출생순위를,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로는 언어적인 대화행위, 음성·표정·신체접촉 등의 비언어적 행위, 반응 행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문항들에 대해서는 가족학 연구자 7인으로부터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수정하고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언어적인 대화행위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2개 요인 즉 긍정적 대화행위와 부정적 대화행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비언어적 행위나 반응 행위는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우호적 비언어 행위와 적극적 반응 행위로 명명하였다. 각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긍정적 대화행위는 위로, 격려, 칭찬, 해결방법 제안, 이유 설명, 잘잘못의 타이름, 질문, 권유, 충고 등이며, 부정적 대화행위는 욕설, 망신, 비난, 협박, 명령, 경고, 조롱, 무관, 훈계 등이다. 그리고 우호적 비언어 행위는 등이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안아주고, 웃는 얼굴과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며, 적극적 반응 행위는 이해, 경청, 관심, 신뢰 등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변인들은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하여 검증하였는데,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값이 .73-.8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 척도의 내적일치도

변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긍정적 대화	9	.81
부정적 대화	9	.85
우호적 비언어	7	.73
적극적 반응	4	.85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10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지각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자녀의 지각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한 이유는 지각심리학의 견해에 근거해서이다. 즉 지각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은 객관적인 사상(事象)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을 사람이 그 사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최정훈, 1973, 16-29),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는 그 자체보다 자녀들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사는 연구의 의도와 수집의 편의를 위하여 10대 초기에 해당되는 국민학교 5학년, 10대 중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 10대 후기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서울시에서 표집한 599명(국민학생 남 102명 여94명, 중학생 남101명 여99명, 고등학생 남 104명 여99명)으로부터 수집한 응답이다.

조사대상자와 그 부모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 3. 분석방법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변인들의 점수는 해당 문항 점수를 더하여 (우호적 비언어행위 중 부정적 내용인 2개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함) 문항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따라서 각 변인들의 점수 분포는 1-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방법으로는 부모의 의사소통

〈표 2〉 조사대상자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父		母		
		N	%			N	%	N	%	
성	남	307	51.3	연령	30代	61	10.5	183	30.9	
	여	292	48.7		40代	360	62.0	331	55.8	
연령	10대初	196	32.7		50代	129	22.2	53	8.9	
	10대中	200	33.4		60代	9	1.5	3	0.5	
	10대後	203	33.9		무응답	22	3.8	23	3.8	
출생순위	첫째	236	39.4		학력	국	43	7.4	64	10.8
	중간	116	19.4			중	61	10.5	151	25.5
	막내	246	41.1			고	284	48.9	286	48.2
	무응답	1	0.2			대	154	26.5	58	9.8
계	599	100.0	직업			대학원	10	1.7	3	0.5
				무응답		29	5.0	31	5.2	
				무직(주부)		6	1.0	411	69.3	
				단순노무직		33	5.7	18	3.0	
				기술·서비스직		91	15.7	45	7.6	
				상업·자영업		235	40.4	88	14.8	
				사무직	146	25.1	12	2.0		
				전문직	34	5.9	13	2.0		
				행정·관리직	29	5.0	2	0.3		
				무응답	7	1.2	4	0.7		
계	581	100.0	593	100.0						

행위 실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父와 母의 의사소통행위간의 차이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의사소통행위 비교는 t-test 또는 F-test와 Scheffe의 사후검증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검증의 유의수준은 .05미만으로 한다.

#### IV. 결과 및 해석

먼저, 연구문제 1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문제 1은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실태는 어떠한가, 父와 母의 의사소통행위간에는 차이가 있는가? 인데, 분석 결과는 〈표 3, 4〉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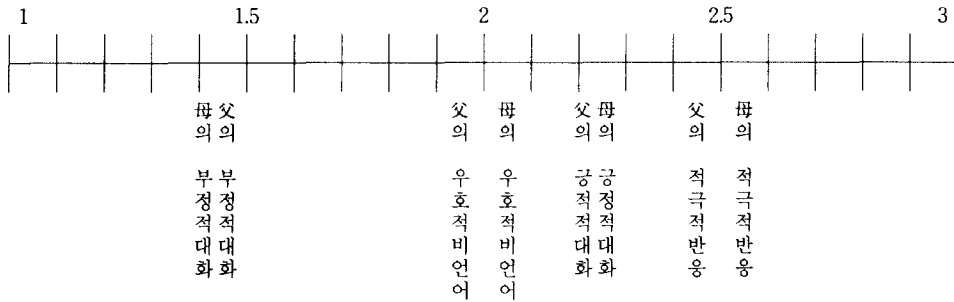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의 점수 분포는 1-3이다. 여기에서 1-1.5는 0-25%의 범위에 해당되는 낮은 경

〈표 3〉 父母의 의사소통행위 실태

	父(N=581)		母(N=593)	
	M	SD	M	SD
긍정적 대화	2.22	.38	2.30	.38
부정적 대화	1.48	.29	1.47	.31
우호적 비언어	1.93	.30	2.03	.31
적극적 반응	2.41	.52	2.53	.49

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5-2.5는 25-75%의 범위에 해당되는 중간 경향으로, 2.5-3은 75-100%의 범위에 해당되는 높은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과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실태는 대체적으로 중간 범위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대화의 점수는 아버지



〈그림 1〉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실태

〈표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사소통행위 차이 비교

	父(N=575)		母(N=575)		Paired t-value
	M	SD	M	SD	
긍정적 대화	2.22	.38	2.30	.37	5.95***
부정적 대화	1.48	.29	1.47	.31	.75
우호적 비언어	1.94	.30	2.04	.31	8.19***
적극적 반응	2.42	.52	2.53	.49	5.73***

\*\*\* : P&lt;.001

〈비고〉 편부모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N, M, SD가 〈표 3〉과 다름.

의 경우 1.48, 어머니의 경우 1.47로 나타나 1.5보다 낮기 때문에 욕설, 망신, 비난, 협박, 명령, 경고, 조롱, 회피, 훈계 등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적극적 반응은 어머니의 경우 2.53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이해, 경청, 관심, 신뢰를 다소 높게 보여주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경우는 2.41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우호적 비언어와 긍정적 대화의 점수는 1.93-2.30으로 나타나 부모 모두 중간 정도의 경향으로 부드러운 음성이나 얼굴 표정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이 자주 표현되는 것은 아니며, 위로, 격려, 칭찬, 조언, 충고, 설명, 질문, 권유 등의 대화도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바람직한 의사소통행위가 되려면 부정적 대화는 실태인 1.47이나 1.48보다 낮은 1에 더욱 가까운 점수이어야 하며, 우호적 비언어, 긍정적 대화, 적극적 반응은 실태인 1.93-2.53보다 더 높은 3에 가

까운 점수이어야 하므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특히 비언어의 우호적인 표현 기법이나 긍정적인 대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표 4〉에 의하면 부와 모의 의사소통행위 간에는 부정적 대화를 제외한 나머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긍정적으로 대화하고, 우호적인 비언어를 더 많이 나타내고,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부정적인 대화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유사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01의 차이)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부정적 대화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1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 모두에게 비언어적인 표현기법, 대화방법, 반응자세 등의 의사소통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해석된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문제 2는 부모와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인데, 분석 결과는 〈표 5-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아버지의 의사소통행위는 아버지 자신의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대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났으며(〈표 5〉), 자녀의 성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연령에 따라서는 부의 모든 의사소통행위에서 차이가 나타났

〈표 5〉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의사소통행위

독립변인			아버지의 의사소통 행위(M)			
아버지변인	구분	N	긍정적 대화	부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
연령	30대	61	2.26	1.48	2.04 A	2.43 AB
	40대	360	2.23	1.47	1.94 B	2.46 A
	50대이상	138	2.16	1.49	1.87 B	2.29 B
	F값		2.3029	1.1940	7.5435***	5.6893**
학력	중 이하	104	2.11 A	1.49	1.86 A	2.31 A
	고	284	2.19 A	1.49	1.93 AB	2.39 A
	대학이상	164	2.34 B	1.46	1.99 B	2.53 B
	F값		13.9480***	.7799	5.7846**	6.3307**
직업	단순노무직 및 피고용직	130	2.13 A	1.50	1.93	2.29 A
	상업 및 자영업	235	2.20 AB	1.51	1.90	2.40 AB
	일반공무원 및 회사원	146	2.29 B	1.44	1.97	2.49 B
	전문직 및 관리직	63	2.31 B	1.41	1.95	2.55 B
	F값		5.3794**	2.7235	1.8248	4.8453**

\*\* : P<.01, \*\*\* : P<.001

〈표 6〉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의사소통행위

독립변인			아버지의 의사소통행위 (M)			
자녀변인	구분	N	긍정적대화	부정적대화	우호적비언어	적극적반응
성	남	300	2.23	1.49	1.91	2.43
	여	281	2.21	1.47	1.96	2.40
	t값		.61	.69	2.13*	.75
연령	10대초기	189	2.25 A	1.47 AB	2.01 A	2.51 A
	10대중기	198	2.24 AB	1.52 A	1.94 A	2.39 AB
	10대후기	194	2.15 B	1.45 B	1.85 B	2.34 B
	F값		4.0895*	3.3758*	13.7321***	5.3011**
출생순위	말이	230	2.25	1.47	1.94	2.43
	중간	115	2.21	1.48	1.93	2.38
	막내	235	2.19	1.49	1.93	2.41
	F값		1.3938	.1680	.2313	.3359

\*\* : P<.05, \*\*\* : P<.01, \*\*\*\* : P<.001

지만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즉 아버지의 연령이 30대일 때에 40대이상일 때보다 우호적 비언어를 더 나타내며, 40대가 50대보다 적극적 반응을 더 나타내고,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수록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을 더

나타내며, 아버지의 직업이 일반 공무원 및 회사원 이거나 전문·관리직일 때에 단순노무직이거나 피고용직일 때보다 긍정적 대화와 적극적 반응을 더 나타낸다. 또한 아버지는 아들보다 딸에게 우호적 비언어를 더 나타내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을 더 나타내며,

〈표 7〉 母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母의 의사소통행위

독립변인			母의 의사소통행위 (M)			
母변인	구분	N	긍정적대화	부정적대화	우호적비언어	적극적반응
연령	30대	182	2.34 A	1.48	2.07	2.54
	40대	331	2.30 AB	1.46	2.03	2.54
	50대이상	56	2.19 B	1.47	1.97	2.47
	F값		2.7369*	.3832	2.4657	.5195
학력	중이하	215	2.21 A	1.49	1.98 A	2.47 A
	고	286	2.35 B	1.47	2.05 B	2.55 AB
	대학이상	61	2.45 B	1.44	2.11 B	2.67 B
	F값		14.0688***	.6767	5.7074**	4.2767**
직업	유	178	2.29	1.50	2.01	2.50
	무	411	2.31	1.45	2.04	2.55
	t값		.51	1.53	1.01	1.05

\*: P&lt;.05, \*\*: P&lt;.01, \*\*\*: P&lt;.001

〈표 8〉 자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母의 의사소통행위

독립변인			母의 의사소통행위 (M)			
子女변인	구분	N	긍정적대화	부정적대화	우호적비언어	적극적반응
성	남	302	2.29	1.45	2.00	2.50
	여	291	2.32	1.49	2.07	2.56
	t값		1.13	1.72	2.49*	1.67
연령	10대초기	192	2.32 AB	1.46	2.05	2.53
	10대중기	198	2.35 A	1.51	2.04	2.49
	10대후기	203	2.24 B	1.44	2.01	2.57
	F값		4.2459*	2.1198	.6292	1.2394
출생순위	말이	234	2.36 A	1.47	2.06	2.60 A
	중간	115	2.26 B	1.48	1.98	2.45 B
	막내	243	2.26 B	1.46	2.03	2.50 AB
	F값		5.3570**	.2849	2.4081	4.4506*

\*: P&lt;.05, \*\*: P&lt;.01

10대 후기의 자녀보다 10대 중기의 자녀에게 부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어머니의 의사소통행위는 어머니 자신의 연령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학력에 따라서는 대체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만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표 7〉), 자녀의 성, 연령, 출생순

위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표 8〉).

즉 어머니의 연령이 30대일 때에 50대이상일 때보다 긍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하며,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을 더 나타내며,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는 아들보다 딸에게 우호적 비언어를 더 나타내며, 10대 후기의 자녀보다 10대 중기의



자녀에게 긍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하며, 출생순위가 둘째나 막내인 자녀보다 맏이에게 긍정적 대화와 적극적 반응을 더 많이 나타낸다.

연구문제 2의 결과에 의하면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위계가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어머니의 경우에도 연령이 50대 이상일 때,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첫자녀보다는 둘째이하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 V. 요약 및 결론

부모의 바람직한 의사소통행위는 자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높혀 결과적으로 부모자녀관계를 향상시키므로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소통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있어서 의사소통행위 교육의 내용 및 대상집단을 선정하는데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부모의 의사소통행위 실태와 부모간의 차이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는 화자로서의 긍정적 대화행위, 부정적 대화행위, 우호적 비언어행위와 청자로서의 적극적 반응행위로 구분하였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작성한 후 서울시에서 표집한 599명(10대 초기에 해당되는 국민학교 5학년 남102명 여94명, 10대 중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 남101명 여99명, 10대 후기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2학년 남104명 여99명)으로부터 수집한 자료에 대하여 평균, t-test, F-test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의사소통 각 행위는 3점 중 1.93-2.53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그 정도가 높지않은 편이다. 분류된 4가지 의사소통행위 중에서 적극적 반응을 가장 많이 보여주며, 우호적 비언어를 가장 적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대화보다는

긍정적 대화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간의 의사소통행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긍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하며, 우호적 비언어와 적극적 반응을 더 많이 표현해 준다.

셋째,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는 부모 자신의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대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사무 전문 관리직일 때 적극적 반응과 긍정적 대화나 우호적 비언어를 더 많이 나타내며, 어머니 역시 연령이 적을수록 긍정적 대화를,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대화와 우호적 비언어 그리고 적극적 반응을 더 나타낸다.

넷째, 자녀의 성, 연령,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부모의 의사소통행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 모두 아들보다 딸에게 우호적 비언어를 더 나타낸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이 어린 자녀에게 긍정적 대화, 우호적 비언어, 적극적 반응을 더 보이고 특히 10대 중기의 자녀에게 부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하는 반면에, 어머니는 10대 중기의 자녀에게 긍정적 대화를 더 많이 한다. 또한 어머니는 맏이에게 긍정적 대화와 적극적 반응을 더 나타낸다.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 의사소통 교육의 내용과 대상집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즉 10대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대화방법, 비언어의 표현기법, 적극적인 반응자세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비언어의 우호적인 표현기법과 긍정적 대화방법이 교육내용에서 강조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부모의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위계가 하위일수록, 자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부모 의사소통교육이 더 필요하며,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실시할 때에 기초 또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순옥,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2) 김순옥, 부모의 의사소통행위가 10대 자녀의 의사소통 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과학(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3, 1993, 215-234.
- 3) 김순희 옮김(Ginott, H. 지음), 부모와 아이들 사이, 종로서적, 1987.
- 4) 김진숙·연미희·이인수 옮김(Samalin, N. & Jablow, M. 지음), 바람직한 자녀와의 대화방법, 학문사, 1990.
- 5) 송성자,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6) 이유경 옮김(Ginott, H. G.), 부모와 청소년, 범우사, 1984.
- 7) 차갑부, 성인교육방법론, 양서원, 1993.
- 8)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상), 세영사, 1976a.
- 9)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하), 세영사, 1976b.
- 10) 최정훈, 지각심리학, 을유문화사, 1973.
- 11) 홍기선, 커뮤니케이션론, 나남, 1989.
- 12) Chaffee, S.H., Mclead, J.M. & Wackman, D.B.,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adolescent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nnis, J.(ed), Socialization to Politic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73.
- 13) Gordon, T., PET :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 New American Library Inc., 1975.
- 14) Hawkins, J., Weisberg, C. & Ray, D., Spous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3), 1980, 585-593.
- 15) Miller, G.R., Speech Communication : A Behavioral Approach, Indianapolis : Bobbs. Merrill Co., 1966.
- 16) Norton, R.W., A foundation of a communicator style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1978, 99-112.
- 17) Satir, V., Peoplemaking,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1972.
- 18) Swenson, C.H., Jr., Introduc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 Illinois : Scott, Foreman and Co., 1973.